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mailto:sa3119@nate.com)



## 강론



### “호산나! 호산나!”

사순절은 이번 주간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밀알의 교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복음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저런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두들 성문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고향인 나자렛에서는 출신이 미천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예수님이셨는데... 손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흑시나 발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입고 있던 겂옷은 벗어 땅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환영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늘의 분위기는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가득차고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일순간에 지나가고 모든 것이 죽음과 수난을 향한 비탄에

---

젖어드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군중은 갑자기 돌변하여 유대인 사제들과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환호하던 나뭇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내려치는 채찍으로 변하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환영하고 맞이했냐는 듯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삶에서 또 자신 안에서 말도 안되는 양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선과 악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들어놓았던 군중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디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다시 소리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상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우리들, 주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 주님의 거룩한 몸인 성체를 영하면서도 불의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행동들이 그토록 환영하며 맞이했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누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가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를 들었습니다. 매 맞고 가시관을 쓰면서 수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세 번씩이나 넘어지면서도 죽을 골고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으시는 예수님, 그런 중에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를 만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에는 바위동굴에 묻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무겁다고 피한다면 그 십자가는 누가 지게 될까요? 십자가는 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 늘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참모습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은혜도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주간을 지내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의 수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수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님의 참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느끼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성주간을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창 본당 신기룡 안드레아 신부**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사명을 완성하실 때가 된 것을 예감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한 희생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전례를 통하여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정성껏 맞아들입시다.

**입당성가** : 10번 ‘주를 찬미해’

### 성지축복 전 권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 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수난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성지축복 기도**(주례자는 성지와 성수를 미리 준비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주례자는 말없이 나뭇가지에 성수를 뿌린다.)

**예루살렘 입성 복음** : 마르코 11장 1절-10절

###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0장 4절-7절

**안 내** : 주님의 종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묵 상** : 주 하느님께서 종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모욕과 수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니다.

**화 답 송**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 제2독서 : 필리피서 2장 6절-11절

**안 내**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묵 상** :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하느님께서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존재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마르코 14장 1절-15장 47절

**강 론** : “호산나! 호산나!”(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152번 ‘오 지극한 신비여’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힘을 지닌 왕이 되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의 임금,  
전지 전능한 하느님으로 받들며 그분을 찬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참된 구원길로 이끌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침묵>

우리는 삶의 모든 기쁨과 문제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전능을 믿고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환호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1번 ‘한 많은 슬픔에’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은 미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과 동시에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성체성사로 당신 자신을 유산으로 남기시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녁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최고로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서는 허리를 굽혀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써 얼마나 낮추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15절)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최고로 칩니다. 그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은 자식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 때문에 당신 목숨을 내놓기로 결심하셨고, 먹이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실 수 있었고,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만찬이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고린 11,24)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십니다. 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고린 11,25)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셨습니다.

성체성사도 사랑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하여 하느님과 일치될 수 있게 되었고 형제들과의 사랑과 일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심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것, 성체성사로 당신의 몸과 피를 먹이시는 것,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을 내어 줄 수 있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별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겐세마니 동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당신께서도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기가 힘들셨나 봅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이 자신을 더욱 괴롭히나 봅니다. 이 죽음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태 26,38)라고 하시며 당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마르 14,38)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나약함에서 오는 유혹을 물리치고자 마음을 다잡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마태 26,39)

이 밤, 2000년 전 오늘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을 오늘날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 모여 앉아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2000년전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모든 이의 발을 씻겨주어야 할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때와 똑같이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으로써 당신의 살과 피로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곧 성체성사로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성사요 사랑의 성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8)

## 함창 본당 신기룡 안드레아 신부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전례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수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드시면서 자신을 기억하며 행하라고 명하신 성찬을 거행하는 날이다. 저녁에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체성사의 뜻을 헤아리며 이 전례를 한다.)*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카 성삼일을 시작하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사랑과 봉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미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머물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입당성가** : 169번 ‘사랑의 성사’

#### 본기도

†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탈출기 12장 1절-8절, 11절-14절**

**안 내 :**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이다.

**목 상 :** 어떠한 재앙도 당신 백성들 앞에서 모두다 비켜가도록 준비하시는 하느님의 자상하고 한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파스카 축제가 늘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화 답 송 :**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제2독서 : 코린토 1서 11장 23절-26절**

**안 내 :**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 상 :** 죽음이 문턱까지 다다랐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염려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요한 13장 1절-15절**

**강 론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1-2쪽)

**예물준비성가 :** 513번 ‘면병과 포도주’

**영성체성가 :** 506번 ‘사랑으로 오신 주여’

**영성체 후 묵상**

한 생을 살면서 내가 누릴 행복 다 바친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저리도 애절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침묵>

다가올 고통과 죽음 앞에서조차  
가장 낮은 이 되시어 제자들 섬기시고  
숨 멎으시는 그 순간도 사랑만 가득한  
주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십니다.

<침묵>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살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받는 것엔 익숙하여 무디어지고  
주는 것엔 인색하여 준 것만 셀 줄 아는 이기심과 욕심들이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침묵>

이러한 우리들의 발을 오늘도 주님은 닦아주십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침묵>

주님은 당신께서 선택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



## 십자가-탐욕의 결과

제가 자주 듣는 팟 캐스트에서 매일 광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로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서울의 모 개신교회에서 ‘도올 김용옥의 마가(마르코) 복음 강의’라는 강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짧게 도올 선생의 육성 녹음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한국의 많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단에서 강론을 하고 설교대에서 설교를 하는 천주교 사제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에게 새겨봄직한 뼈아픈 충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산헤드린(종교의회)에서 종교재판을 한 이들은 그해의 대사제 가야파와 그 일당들이고, 예수님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는 유다 총독으로 와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래아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의 야합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선동에 동원된 예루살렘의 우매하고 이기적인 군중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희생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한껏 채우고 싶어 했던 대사제들과 사제 그룹, 사두가이들, 율법학자와 바리사리들. 이들은 때론 율법의 해석과 권력의 나눔에서 적대적 관계였지만 자신들의 자리 즉 권력과 명예, 이에 따른 부의 축적을 방해하는 공동의 걸림돌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에서는 한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했던 예루살렘 총독 빌라도와 아버지 헤로데 왕 이후 4개로 쪼개어진 작은 땅에 만족해야 했던 갈릴래아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각각의 땅에서 백성들의 신망과 종교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은 공동의 적이었기에 그들은 서로 동조, 야합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차이를 넘어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는데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사리사욕을 넘어 하느님 나라가 먼저라고 촉구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민중에게도 적잖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하느님 나라 추구를 촉구하신 예수님의 외침은 이스라엘 민중에게 듣고 따르기 힘든 가르침이었기에 결정적인 순간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요구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고, 이러한 그들의 이기심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고 누구에 의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즉 대사제 가야파와 종교 지도자들,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와 헤로데 그리고 빌라도 총독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



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느님의 가르침인 사랑보다 인간의 욕망인 탐욕, 물질과 권력을 좇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으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는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욕망에 눈이 먼 유대인들로 한정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간 또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금요일,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시다.

## 송현동 본당 배인호 베드로 신부



###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전례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전례는 말씀의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리 독서자와 수난복음을 나누어 읽을 사람을 배정하고 경배용 십자가를 준비한다.)*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주례자는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한 다음, 교우들을 향해 서서 기도를 바친다.)*

기도 (“기도합시다!” 없이)

十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이사야서 52장 13절-53장 12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이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목 상 :** 수치와 조롱과 병고의 고통 앞에서, 주님의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의 어미 양처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며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이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제2독서 : 히브리서 4장 14절-16절, 5장 7절-9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수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고 전합니다.

**목 상 :** 하느님께서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는 이들이 보여준 경외심 때문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마음을 굳게 하여 순종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요한 18장 1절-19장 42절

**강론** : ‘십자가-탐욕의 결과’(1-2쪽)

**보편지향기도**

**안 내** :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수난의 길을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주례자는 아래 기도를 정성되이 바친다.)*

**1) 교회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었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 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교황을 위한 기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3) 모든 성직자들과 신자를 위한 기도**

†우리 주교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4)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 주시니, 성자의 양 떼를 굵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5)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이를 풀어 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 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곤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십자가 경배

**안 내 :** 이제 우리는 십자가 경배 예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표지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도록 다짐하며 십자가 경배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주례자가 제단 가운데에 서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아래와 같이 외칠 때 마다 교우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크게 응답합니다.

(주례자)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세번)

(교우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세번)

*(주례자는 십자가를 제단 가운데 모셔 놓고 앞으로 나와 깊이 절하며 경배한다.)*

**십자가 경배 예절 안내 :** 이제 한 분씩 제단 가운데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여 깊이 절하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성가 125번 ‘거룩한 주의 십자가’)

**영성체성가 :**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성체 후 묵상 :**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닷길을 뚫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 옆구리를 뚫었느냐?

너희에게 만나를 먹였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빵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였느냐?

너희를 높여 큰 권세를 주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느냐?

<침묵>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많은 죄를 용서하였는데,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너희에게 나의 몸과 피를 주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너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공지사항**

**마침성가 :**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알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 1.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2.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3.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 4.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5.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성 마티아 어린이집 축복식

- 일시 : 3월 27일(화) 15:00
- 장소 : 갈전 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성 목요일 성유축성미사

- 일시 : 3월 29일(목) 11:00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준비물 : 장백의, 백색영대, 성유그릇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2

- 일시 : 4월 9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2018년 안동교구 성소주일 행사

- 주제 : “내가 너와 함께 있다.”(예레 1,8)
- 일시 : 4월 22일(주일)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청년들
- 준비물 : 미사준비, 점심도시락, 돗자리, 식수, 명찰(달고 오기)
- 신청 : 4월 6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8일(부활 제2주일) : 태화동 본당
- 4월 15일(부활 제3주일) : 신기동 본당 (견진성사)
- 4월 29일(부활 제5주일) : 개운동 본당 (견진성사)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3월 26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정하영 모니카(원주교구)

■ 우리농 소비자회원 강좌

- 일시 : 4월 4일(수) 10:30
- 장소 : 나섬식생활교육원(목성동성당 밑)
- 내용 : 유기농 우리밀 고추장 만들기 (재료비 : 16,000원)

■ 제4회 한국청년대회 참가자 모집

- 주제 :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 일시 : 8월 11일(토) - 15일(수) 4박 5일
- 장소 : 서울대학교
- 대상 : 만 16세(고1) ~ 만 39세
- 참가비 : 20만원 (참가비 15만원+교구회비 5만원)

- 신청 : 3월 30일(금)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교구 홈페이지(<http://www.acatholic.or.kr>)에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4월 27일(금)19:00 - 2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미혼남여,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90,000원
- 문의 및 신청 :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료(010-4159-9778)
-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교구 ‘성모의 밤’에 봉헌할 기도 참여하기

- 일시 : 5월 1일(화) 19:30
- 장소 : 교구청 성모상 앞
- 주관 : 안동교구여성연합회
- 대상 : 전 신자
- 기도지향 : 교구 5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교구를 위하여
- 방법 : 미사, 묵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본당별로 성모님께 봉헌(본당 여성단체 대표 4월 30일까지 수합)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